

中國의 圖書館과 文獻情報學教育 動向

李炳穆*

목 차

1 中國의 圖書館 概況	2.1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1 中國圖書館史에서의 日本製 漢語 ‘圖書館’	2.2 北京大學圖書館
1.2 中國 司書의 教授身分	3 上海의 圖書館
1.3 中國圖書館을 움직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	4 中國의 文獻情報學教育
1.4 中國의 圖書館發展課程	4.1 概況
2 北京의 圖書館	4.2 北京大學信息管理系
	5 開放과 交流 - 韓·中相互協力

1 中國의 圖書館 概況

필자는 1992년 10월에 中國 최대의 학술기관인 中國科學院으로부터 개인자격으로 韓·中 양국간의 圖書館 및 文獻情報學 분야 상호협력과 교류를 협의하기 위한 訪中 제의를 받고 1993년 5월에 정식 초청을 받아 1993년 7. 4 - 18까지 2주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여기서 잠시 필자를 초청한 中國科學院의 文獻情報中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949년에 발족한 中國科學院은 1990년 현재 그 산하에 中國 전역에 걸쳐 142개 문헌정보기구, 즉 도서관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는 제일 규모가 큰 北京의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을 비롯하여 上海 蘭州 成都 武漢의 4개 地區文獻情報中心, 2개 分院圖書館, 122개 研究所情報室, 13개 工場 學校 出版社 文獻情報部門이 포함되어 있

* 延世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다.¹⁾

이러한 142개 문헌정보기구에서 소장하고 있는 총장서수는 3천여만책으로 이중 정기간행물, 단행본, 회의문헌을 모두 합친 숫자는 2천 500만책에 이른다.²⁾

장서중에서 정기간행물은 60.6%, 단행본은 29.3%를 차지하고 있고, 정간물 종수는 2만여종에 달한다. 한편 1988년 현재 중국과학원 산하 문헌정보기구에 종사하고 있는 총직원수는 2,789명이고, 그중 전문직으로 분류된 직원수는 2,53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³⁾ 직원의 남녀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1,691명으로 이는 전체의 60.6%를 차지한다.⁴⁾

필자가 방문한 지역은 北京과 上海 두 곳이었고, 방문기관은 모두 15개 기관이었는데 北京에서는 중국국가도서관인 北京圖書館,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인 北京大學信息管理系를 포함한 8개 기관이었고, 上海에서는 중국 최대 공공도서관인 上海圖書館, 문헌정보학 교육기관인 華東師範大學情報學系를 포함한 7개 기관이었다.

중국의 국토 면적은 960만 Km²로 러시아와 카나다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아시아 육지 면적의 4분지 1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1991년 말 현재 약 11억 6천여만명으로 세계 제 1위이며, 세계 인구의 약 4분지 1이 중국인이다. 漢族이 전 인구의 94%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55개 소수민족이 分占하고 있다. 1990년 통계에 의하면 조선족수는 192만여명으로 소수민족중 13번째로 많은 인구이다. 행정구역은 22개 성, 3개 직할시(북경, 상해, 천진), 5개 자치구, 30개 자치주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조선족이 가장 많이 사는 연변은 1952년에 조선족 자치주로 공포되었다.⁵⁾

중국도서관은 그 전모를 개괄할 수 있는 자료나 통계가 미비할 뿐 아니라 더더욱 최근의 통계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이 든다. 따라서 각종 자료에서 散見되는 것을 참고하여 그 面面을 살펴보기로 한다.

1) 白國應 等著,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構想, 1991-2000.”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 : 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 2.

2) 上揭書, p. 3.

3) 上揭書, p. 9.

4) 史學智, “中國科學院文獻情報隊伍建設.”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 : 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 296.

5) 중앙일보사 특별취재팀, 한국인의 중국여행 (서울 : 동사, 1993), pp. 8 - 14.

동아일보사, 中國百科 : 新東亞 1993년 1월호 별책부록 (서울 : 동사, 1993), pp. 38 - 45.

新華社통신은 1985년 4월 현재 中國의 각종 도서관수가 30만개, 장서는 8억책, 직원은 18만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桑健씨는 실제 장서수가 10억책, 직원은 20만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⁶⁾ 鮑振西⁷⁾ 씨는 1985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중국의 공공도서관수는 4만 4천여개, 장서는 2억 6천만책이라고 하였고(中國의 省級 공공도서관에 대한 概況은 附錄 1 참조), 劉建昌⁸⁾ 씨는 光明日報에 기고한 글에서 工會계통(노동조합과 공장)의 도서관수가 19만개, 장서수는 3억 4천만책이라고 하였다. 다른 한 자료에 의하면 1988년 말 현재 工會도서관수는 24만 7천개, 장서수는 5억 4천만책, 직원은 9만 3천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⁹⁾

1986년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대학도서관수는 1,053개, 장서수는 3억 4천만책, 직원은 3만 9천여명으로서¹⁰⁾ 이중 장서수가 200만책이 넘는 대학만도 北京大學, 復旦大學, 中山大學, 南京大學, 中國人民大學, 武漢大學, 清華大學, 上海交通大學, 北京師範大學, 華東師範大學 등 10개 대학에 이른다.¹¹⁾ 그리고 전국 과학원계통 및 전문도서관은 그 수가 4,000여개로 장서수는 1억책으로 추산되고 있다.¹²⁾ 이러한 통계자료들은 비록 단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1949년 10월 1일 中華人民共和國 정부수립 당시 도서관수가 중국 전역에 걸쳐 고작 39개 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수적인 면에서 엄청난 발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中國에는 우리 韓國文獻情報學會와 동일한 성격의 학술단체는 없고 대신 韓國圖書館協會와 유사한 전문적 단체인 中國圖書館學會가 조직되어 있다. 일찌기 1925년에 中華圖書館學會로 발족하여 활동을 해오던 중 1949년에 신중국 정부수립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78년에 정부가 이의 재조직을 인가하여 1979년에

6) 桑健, “對我國圖書館事業四十年 領導體制的反思,” 四川圖書館報, 1988년 第 2 - 3期. 所收: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의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 90.

7) 鮑振西, “國內外圖書館發展與趨勢,” 圖書館(長沙), 1985年 第1期. 所收: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의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90 - 91.

8) 劉建昌, “職工文化在文化事業發展中的戰略研究,” 光明日報 1986年 1月 17日. 所收: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의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 90.

9) 鮑振西, 許婉玉, 李哲民, “新中國圖書館事業40年,” 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3期. 所收: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의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 24.

10) 桑健, 前揭論文, p. 90.

11) 鮑振西, 許婉玉, 李哲民, 前揭論文, p. 24.

12) 桑健, 前揭論文, p. 90.

정식으로 재창립되었다.¹³⁾ 이와 함께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협회성격인 中國科學技術情報學會가 1964년에 창립되었는데 ‘文革’으로 그 활동이 중단되었다가 1978년에 재개되었다. 현재 中國圖書館學會는 中國國家圖書館 分館에, 그리고 中國科學技術情報學會는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內에 각기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처럼 넓은 국토와 엄청난 인구, 그리고 수많은 도서관을 가진 中國이란 거대한 나라를 불과 2주일에 걸쳐, 그것도 北京과 上海 두곳에 국한해서, 15개 기관을 주마간산식으로 둘러 보고 30명 남짓한 관련 인사들과 잠깐동안씩 회동한 것을 토대로 중국의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교육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방문경험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국교단절로 말미암은 빈약한 중국관련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데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이다.

그러면 우선 방문전후 혹은 방문기간중에 터득하거나 확인한 中國의 도서관 전반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 직접 방문한 기관 가운데 몇 곳을 선정하여 그 기관의 조직과 활동등 몇몇 부면을 알아보기로 한다.

1. 1 中國圖書館史에서의 日本製 漢語 ‘圖書館’

中國의 圖書館 역사는 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작 ‘圖書館’이란 용어는 ‘社會’ ‘民主’ ‘科學’ ‘出版’ 등과 같이 일본에서 근세에 만들어져 중국과 한국으로 流入되었다고 日本의 小黒浩司씨는 밝히고 있다.¹⁴⁾ 즉, 清日전쟁 이후 중국의 강유휘, 양계초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이 일본의 명치유신을 본받아 내정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본으로의 각종 시찰과 유학은 물론 日本語圖書의 中國語 번역이 성행했는데, 이 때 일본인들이 구미의 문화와 학술을 받아들일 때 새로이 만들어낸 한자숙어를 중국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고 하였다.¹⁵⁾ 또한 중국의 高

13) 李鎮相, 中共의 閱書館에 관한 研究, 서울 : 1985.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대학원 도서관학과, 1986), p. 73.

14) 小黒浩司, “日中圖書館界交流의 歷史,” 圖書館雜誌, 第86卷 第8號 (1992. 8), p. 510.

15) 小黒浩司, “和製 漢語 ‘圖書館’의 中國에의 移入,” 圖書館學會年報, 第32卷 第1號 (1986. 3), p. 33.

名凱, 劉正瑛씨와¹⁶⁾ 王立達¹⁷⁾ 씨가 연구한 것을 종합해 보면 日本語로부터 나온 中國語(漢語)는 784개나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력을 가진 ‘圖書館’ 이란 용어가 中國에서 최초로 도서관명칭으로 사용된 예로 종래까지는 1905년에 개관한 湖南圖書館임이 통설이었지만¹⁸⁾ 汪家熔¹⁹⁾ 씨는 이보다 앞서 1897년에 張元濟란 사람이 北京에 설립한 通藝學圖書館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밝혀낸 바 있다. 또한 張錦郎²⁰⁾ 씨는 ‘圖書館’이란 名詞가 일본에서 건너와 中國의 문헌에 최초로 나타난 것은 이보다 앞서 1896년에 발행된 「時務報」에 실린 한 글에서였다고 하였다.

1. 2 中國 司書의 教授身分

‘圖書館’ 이란 단어가 일본에서 만들어져 중국으로 移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이 사용하고 있는 ‘司書’란 직명은 중국에 없고 대신 ‘館員’이란 용어가 법적으로 전문직을 나타내는 직명의 일부로 쓰이고 있는데 그 내력은 다음과 같다.

中國科學院은 1978년에 발표한 「中國科學院圖書館情報工作會議紀要」에서 ‘과학기술 정보업무는 과학연구업무중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이는 과학연구업무의 耳目, 첨병, 참모이다. 도서정보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역시 과학연구에 종사하는 직원의 일부분이다’²¹⁾라고 도서관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취지아래 같은 해 中國科學院圖書館은 ‘中國科學院圖書, 資料, 情報業務人員定職, 升職試行條例’를 제정하여 도서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범주를 業務人員, 技術人員, 業務組織人員,

16) 高名凱, 劉正瑛, 現代漢語外來詞研究 (北京 : 文字改革出版社, 1958), pp. 79 - 89. 小黑浩司, 上掲論文, p. 33에서 재인용.

17) 王立達, “現代漢語中從日語借來的詞彙,” 中國語文, 1958年 第2期, pp. 90-94. 小黑浩司, 上掲論文, p. 33에서 재인용.

18) 小黑浩司, 上掲論文, p. 34. 小黑浩司, “湖南圖書館史의 研究,” 圖書館學會年報, vol. 32 no. 2 (1986. 6), pp. 64 - 65. 附錄 1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부 중국 자료에는 1904년이란 설도 있다.

19) 汪家熔, “張元濟和圖書館事業,” 圖書館學通訊, 1985年 第2期, p. 93.

20) 張錦郎, “清末的圖書館事業,” 國立中央圖書館館刊, 第6卷 第2期, 1973, p. 3.

21) 白國應,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的方向, 任務和體制模式,”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 : 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 49.

黨政工作人員, 技術工人, 公勤人員, 其他人員으로 구분하였다.²²⁾ 이는 그뒤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직원 범주를 규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國務院이 비준한 인사규정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여겨진다.

〈표 1〉 中國의 司書職 및 一般專門職 業務職稱

職種	職級	1	2	3	4	5
圖書館事業幹部 (圖書館職)		研究官員	副研究官員	館員	助理官員	管理員
高等院校教師 (大學教授職)		教 授	副 教 授	講 師	助 教	
工程技術幹部 (工業技術職)		高 級 工 程 師		工 程 師	助 理 工 程 師	技 術 員
統計幹部 (統計職)		高 級 統 計 師		統 計 師	助 理 統 計 師	統 計 員
編 輯 幹 部 (編 輯 職)		編 審	副編審	編 輯	助 理 編 輯	
外語翻譯幹部 (翻譯職)		譯 審 副	譯 審	翻 譯	助 理 翻 譯	
新聞記者 (記者職)		特 殊 記 者	高 級 記 者	記 著 者	助 理 記 者	
經濟事業幹部 (經濟職)		高 級 經 濟 師		經 濟 師	助 理 經 濟 師	經 濟 員
會計人員 (會計職)		高 級 會 計 師		會 計 師	助 理 會 計 師	會 計 員
研究幹部		研 究 員	副研究員	研究員補	研究實務員	管 理 員

出典 : 「人民日報」1981. 1. 13, 「中國百科年鑑」(1982) p. 627.

李鎮相. 中共의 圖書館에 관한 研究. 서울 : 1985.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p. 67에서 일부 자구수정을 한 다음 재인용한 것임.

22) 黃宗忠, “試論圖書館管理隊伍的建設,”山東圖書館季刊, 1981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 262.

國務院은 1981년 1월에 도서관과 도서관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원의 직급과 직명에 관한 규정인 ‘圖書、檔案(文書)、資料專業幹部業務職稱暫行規定’을 비준하였다.²³⁾ 이것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에 대해 대학교수직을 포함한 타전문직과 동일한 신분과 대우를 부여하도록 국가가 정한 획기적인 인사규정으로서 이를 표로 그려 비교해 보면 앞의 <표 1>과 같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서직 1급인 ‘研究館員’은 대학교수직 1급인 ‘教授’와 동등한 신분과 대우를 보장받는다. 일반적으로 사서에 대한 教授身分(faculty status, academic status)부여란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사서에게 교수진의 직위와 직명을 부여해서 교수진과 대등한 봉급과 특전을 주고 가르치는 직원의 일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전기한 규정은 대학도서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종에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전문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중 ‘研究館員’급에 해당하는 직원은 教授라는 칭호는 물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따라서 ‘研究館員’은 자기의 직급을 영어로 표기할 경우 ‘professor’ ‘research professor’ 혹은 ‘research librarian’ 등으로 ‘副研究館員’은 ‘associate professor’ ‘associate research librarian’ 등으로 나타내고 있다.

1. 3 中國圖書館을 움직이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

1979년에 제정된 ‘中國圖書館學會規程’²⁴⁾을 보면 제1조에 ‘중국도서관학회는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있는 학술단체이다.’ 제2조에 ‘학회는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모택동사상을 지도근거로 당의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하고 이론을 실무에 관련시킨다는 원칙을 견지하며…’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1987년에 개정된, 대학도서관규정인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²⁵⁾ 제2조에도 ‘대학도서관은 공산당과 국가의 고등교육 방침, 정책과 법령을 관철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과 인류과학문화의 우수한 성과를 선전하고…’라고 기술되어 있다.

23) 李鑑相, 前揭論文, pp. 65 - 67.

24) 中國研究月報, 第392號 (1980. 10), pp.13 - 14. 李鑑相, 前揭論文, p. 133에서 재인용.

25)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 大學圖書館通訊, 1987年 第5期, p.19.

실제 上海圖書館의 기구표²⁶⁾에는 도서관장과 같은 위치에 그러나 서열상으로는 그보다 앞서 공산당위원회서기가 자리하고 있다. 北京大學文獻信息管理系의 경우에도 교수진 가운데 당위원회 부서기가 2명이나 있고, 교과과정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관한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²⁷⁾ 이밖에도 각종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中國圖書資料分類法」이나 「中國人民大學圖書館圖書分類法」같은 분류표²⁸⁾ 와 南京圖書館編의 「圖書館學情報學論文索引, 1981-1989」²⁹⁾, 武漢大學圖書情報學院編의 「圖書館學情報學 檔案學 出版發行學 論文索引, 1949-1985」³⁰⁾ 같은 색인집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이 총류격으로 제일 앞에 배정되어 있다.

위에 예로 든 이러한 몇가지 사실들은 中國의 圖書館을 움직이는 철학, 혹은 원동력이 중국의 다른 모든 사회제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1. 4 中國의 圖書館發展過程

國會圖書館의 이진상씨는 그의 석사학위논문인 「中共의 圖書館에 관한 研究」에서 新中國 건설이후의 중국의 도서관발전단계를 1. 1949-1965 - 공산혁명에 의한 도서관 성장기, 2. 1966-1976 - 문화혁명에 의한 도서관 수난기, 3. 1977년 이후 - 발전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³¹⁾ 이러한 그의 시대구분은 李宗春, 徐澍地, 易縛平³²⁾ 씨가 함께 내린 구분 즉, 1. 1949-1969 尊期時期, 2. 1966-1976 停滯時期, 3. 1977-1988 回復發展時期의 3단계와 일치한다.

26) 표 4. 上海圖書館 機構設置 一覽表 참조.

27) 北京大學信息管理系 (北京 : 同系, 1993), p. 1.

28) 王煥씨는 도서분류법의 편제 원칙으로 제일 먼저 사상성의 원칙을 들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변증유물주의와 역사유물주의의 입장, 관점, 방법으로 도서분류법을 편제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王煥, “圖書分類,” 所收 : 武德運 主編, 圖書館學情報學概要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3), pp. 87-88.

29) 南京圖書館 编. 圖書館學情報學論文索引, 1981-1989.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3), pp. 1-3

30) 武漢大學圖書情報學院 编. 圖書館學情報學 檔案學 出版發行學 論文索引, 1949 - 1985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1), pp. 3-5.

31) 李鐵相, 前揭論文, pp. 19-34.

32) 李宗春, 徐澍地, 易縛平, “我國圖書情報事業의 組織與管理,”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의 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1-8.

그러나 鮑振西, 許婉玉, 李哲民³³⁾ 씨는 이러한 3단계중 1단계를 세분하여 4단계로 구분하고 그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1949-1953 改造段階 - 舊中國의 반식민, 반봉건적인 圖書館을 마르크스 레닌 주의와 모택동사상의 지도아래 개조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규정을 개혁한 시기.

2. 1954-1965 全面建設段階 - 각종 정책, 조례, 규정 등을 제정 공포하고 도서관 협력과 발전을 도모한 시기.

3. 1966-1976 動亂破壞段階 - 文革 10년동안 많은 도서관이 폐쇄 혹은 폐관되고 지식계급으로 분류된 도서관직원들이 농촌으로 배치되어 극심한 정치현상을 빚은 시기.

4. 1976-1989 穩定發展時期 - 4인방 분쇄이후 문학기간중의 고통을 복구, 회복하고 발전을 도모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시기.

新中國 성립이후 중국의 도서관이 걸어온 이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대한 지식은 문헌상으로나 직접 방문을 통해서나 오늘의 中國圖書館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부분이다.

2 北京의 圖書館

북경에서는 중국국가도서관인 北京圖書館³⁴⁾, 전문도서관인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정보처리 및 제공기관인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 공공도서관인 首都圖書館, 대학도서관인 北京大學圖書館, 清華大學圖書館, 中國人民大學圖書館, 문헌정보학교육 기관인 北京大學信息管理系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중 과학전문도서관으로서 중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³⁵⁾과 北京大學圖書館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3) 鮑振西, 許婉玉, 李哲民, 前揭論文, pp. 16-21.

34) 北京圖書館에 관한 최근의 소개 자료는 北京圖書館에서 발행한 안내 책자인 北京圖書館, 1992를 토대로 기술한 다음 자료가 있다. 심인선, “中國國家圖書館,” 도서관계, 1993.7·8 (도서관, 제48권 제4호 별책부록), pp. 22-24.

35)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자료를 포괄적으로 이용하였다.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北京 : 同中心, 1988),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 : 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2. 1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略史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일명 中國科學院圖書館은 中國科學院 직속의 자연과학 분야 종합 문헌정보기구로서 1950년에 설립되었다. 설립당시에는 圖書館管理處란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곧 이어 1951년에 中國科學院圖書館으로 개칭하였다.

1956년에는 중국과학원내에 도서관과는 별도로 中國科學院情報研究所가 설치되었는데 이 연구소는 1958년에 中國科學技術情報研究所로 기능을 확대 강화했다가 1960년에 國家科學技術委員會 산하 기구로 개편되었으며, 1992년에는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³⁶⁾로 개칭하였다.

1978년 11월에는 중국과학원 제1차 ‘圖書情報工作會議’를 개최하여 정보봉사 직 능을 강화하고 ‘圖書情報一體化’ 관리체제를 실행하기로 결정함과 아울러 ‘中國科學院圖書情報工作暫行條例’와 ‘中國科學院圖書, 資料, 情報業務人員定職, 升職試行條例’ 등을 제정하였다.

1985년 11월에는 中國科學院圖書館을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으로改名하되 舊名은 그대로 보유하기로 결정하였다.

1986년 11월에는 제2차 ‘全院文獻情報工作會議’를 개최하여 ‘中國科學院工作暫行條例’를 수정하고,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 75 發展計劃’을 수립하였다. 또 이 회의에서는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중국과학원의 임무와 연구방향에 입각하여 국내외 과학기술문현을 수립, 정리, 축적, 개발하고 제공한다.

둘째, 중국과학원내에 전국적인 규모로 노동분배 원칙에 입각하여 문헌정보검색 체제를 설립한다.

셋째, 중국과학원의 수요에 대응한 발전 전략,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연구 계획을 조직하기 위하여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의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 봉

36)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에 대한 자세한 소개로는 다음 자료가 있다. 姜漢哲, “中國科學技術情報院,” 情報管理研究, 제22권 제1호(1991.6), pp. 91 - 104.

사를 실시한다.

넷째, 중국과학원의 문헌정보 자원과 업무를 조정하고, 중국과학원에 속한 모든 문헌정보기구와 문헌정보망의 업무를 지도하고, 경험 교류와 직원 훈련을 조직한다.

다섯째, 문헌정보업무의 이론, 방법, 신기술, 표준화, 자동화에 대한 연구를 조직 개발하고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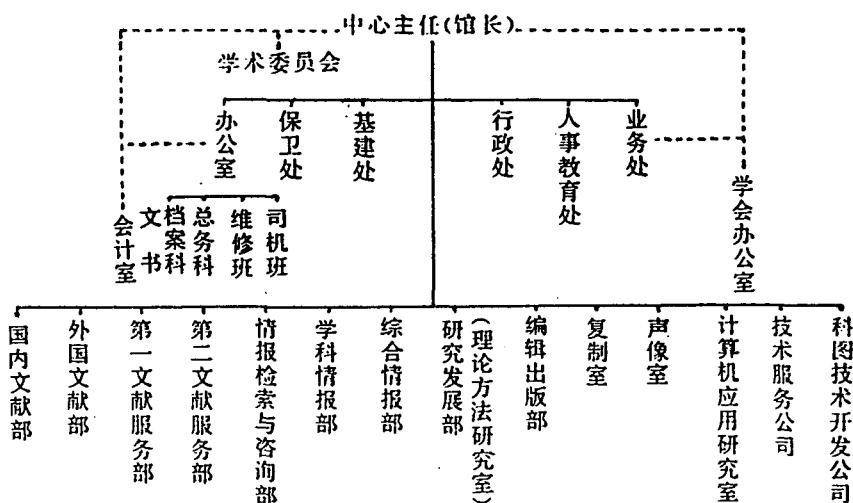
여섯째, 국내외 문헌정보 학술 교류와 협력 활동을 조직하고 참가한다.

일곱째, 중국과학원内外에서 위탁한 문헌정보 업무를 처리한다.

機構와 職員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의 조직을 살펴보면 主任(圖書館長)아래 辦公室(祕書室)

〈표 2〉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組織機構 簡表



出典：辛希孟，“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的現狀和發展趨勢。”所收：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北京：中國科學院圖書情報委員會，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1991），p. 85。

혹은 事務室), 保衛處(保安處), 基建處(建設處), 行政處, 人事教育處, 事務處(企劃協調處)와 9개 部, 2개 室, 2개 公司로 나누어져 있으며, 會計室 學術委員會 學會(協會)事務室의 3개 기구가 主任 자문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 표 2>와 같다.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의 직원은 앞서 인용한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暫行條例’에 의하면 業務人員, 行政人員, 工人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9년 말 현재 통계에 의하면 총직원수는 423명으로 이 가운데 업무인원은 330명(78%), 행정인원은 25명(6%), 공인은 68명(16%)으로 나타나 있다.

藏書

1987년 말 통계에 의하면 총장서수는 542만책으로 이중 자연과학이 70%, 사회과학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계통의 도서관이면서도 사회과학분야의 장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원래 新中國 이전의 ‘中央研究院’ ‘北平研究院’과 같은 연구기관의 장서를 물려받은 때문이며, 실제로 地方誌와 明·清의 문집같은 고문헌도 珍藏으로 소장되어 있다.

장서가운데 연속간행물은 3만여종 304만여책(55.8%), 일반도서 90만책(16.4%), 線裝圖書 46만책(8.6%), 각종 과학기술보고서 102만건(19.2%)이 포함되어 있다. 자연과학분야 장서의 주제로는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지학, 생물과학과 같은 기초이론분야와 전자계산기, 반도체, 원자력, 신재료 등 신기술을 망라하고 있다. 장서의 언어 구성비율을 보면 西洋語가 53.6%, 中國語가 24%, 日本語가 9.4%, 러시아어가 8%를 이루고 있다.

한편, 국제교환도 활발하여 1989년도 통계에 의하면 51개국 1,238개 기관과 연속간행물 교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북한의 15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남한과는 1993년 현재까지도 아직 정상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檢索 體系

분류체계는 線裝古籍分類目錄에서처럼 전통적인 ‘四庫法’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장 장서에 대해 자체 개발한 도서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 즉,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는 1958년에 출판한 「中國科學院圖書館圖書分類法」을 1974년에 다시 수정하여 펴낸 제2판으로 이는 北京圖書館의 「中國圖書資料分類法」 中國人民大學圖書館의 「中國人民大學圖書館圖書分類法」과 함께 중국의 3대 분류표로 정평이 나 있다.

소장 장서에 대한 검색 수단인 목록으로는 카드목록과 장서목록으로 대별된다. 카드목록은 다시 中文目錄과 外文目錄으로 구분하여 각기 분류목록, 서명목록, 저자목록 등을 기본으로 구비하고 있다. 장서목록으로는 「中國科學院全院西文期刊聯合目錄 1987」「中國科學院圖書館地方誌目錄 1976」등 10여종 이상이 발간된 바 있다.

編輯 出版

과학도서관의 특성상 서목, 초록, 색인과 같은 2차 자료의 작성과 배포에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중국에서 이 도서관이 차지하고 있는 지도적인 위치와 과학기술정보분야 인력양성이란 교육기능으로 해서 과학기술문헌정보관계 교재, 참고자료, 보고서, 연구논문, 정기간행물도 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은 대개 외부용과 내부용으로 나뉘어지는데 문헌정보학관계 외부공개용으로는 「圖書情報工作」(격월간)이 있고, 2차자료가운데 외부 공개용으로는 「中國數學文摘(抄錄)」(계간), 「中國物理文摘」(격월간) 등 10여종이 넘는다.

1976년부터 도서관업무의 전산화에 착수한 북경의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에서는 자체 도서관업무외에도 「中國科學院西文連續出版物聯合目錄」을, 그리고 中國科學院上海文獻情報中心에서는 「中國生物學文獻數據庫(中文, 英文)」란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이용시키고 있다.

人材 養成

1979년부터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이 연구생을 받아들여 교육을 실시한 이래 蘭州와 上海文獻情報中心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1986년에는 國家學位委員會로부터 도서관학과 과기정보학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비준을 받아³⁷⁾ 대학이 아니면서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특전을 갖게 되었다.

2. 2 北京大學圖書館

北京大學³⁸⁾은 1993년 현재 학부에 29개 학과 86개 전공이 있고, 대학원에 132개 석사과정과 91개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한편 국가중점학과는 42개, 국가중점실험실은 5개이며, 공동연구소 36개와 연구중심 31개를 가지고 있다.

학생총수는 16,725명으로 그 중 학부생은 6,323명, 대학원생은 2,922명이며 나머지는 그밖의 각종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유학생도 600여명이나 되는데 60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 교직원수는 무려 7,700여명으로 이 중 정교수와 부교수는 1,600명, 기타 각종 전문직 자격을 가진 사람은 620명이다. 대학 쇠고 행정직, 즉 領導로는 당위원회서기 1명, 부서기 4명과 총장 1명, 부총장 8명이 있다.

略史³⁹⁾

北京大學의 전신은 京師大學堂으로서 1898년에 정식으로 개교하였는데 개교 4년 후인 1902년에 건립한 도서관 역시 京師大學堂藏書樓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다가 1912년에 校名이 京師大學堂에서 北京大學으로 개칭되어 館名도 北京大學圖書館으로 개명되었다.

항일 전쟁시기였던 1837년에서 1945년 사이에는 清華大學圖書館, 南開大學圖書館과 연합하여 長沙에서 임시로 개관하였고, 뒤에는 西南聯合大學圖書館이란 명칭으로 昆明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종전 후 1946년부터 1952년까지 大學이 北京의 燕京大學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도서관도 함께 이전하여 왔으며, 아울러 燕京大學圖書館을 흡수, 합병하였다.

37) 史學智, 前揭論文, p. 293.

38) 北京大學校長辦公室 編, 北京大學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3).

39) 北京大學圖書館에 대해서는 北京大學圖書館, 1902-1992 (北京 : 同館, 1993) 을 주로 이용하였고, 吳曉 編著, 北京大學圖書館九十年記略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2) 을 일부 참고하였다.

機構와 職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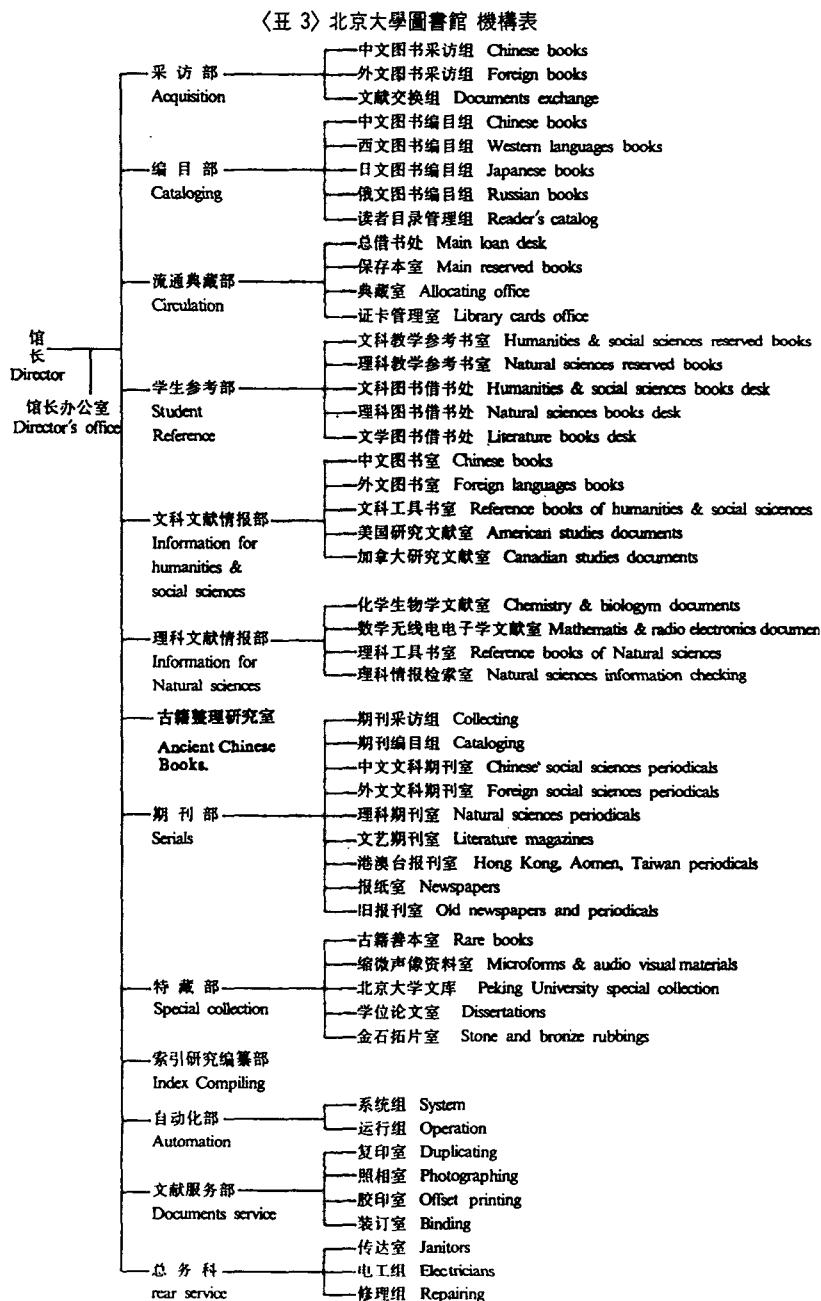
도서관의 조직은 도서관장 밑에 관장사무실과 采訪部(收書部), 편목부, 流通典藏部, 학생참고부, 문과문헌정보부, 이과문헌정보부, 고적정리연구실, 期刊部(連續刊行物部), 特藏部, 색인연구편찬부, 자동화부, 문헌복무부 등 12개 부와 총무과의 1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서 조직에 있어서 外文도서를 中文도서와 분리시켜 별치한 점, 대만 홍콩 마카오 정간물을 함께 모아 이를 별도의 열람실에 비치한 점, 대부분의 다른 대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복본을 갖추어 이를 관내에서만 이용토록 한 ‘保存本室’을 둔 점 등은 독특한 방식이라 여겨진다. <표 3>은 이러한 부서조직을 보여주는 이 도서관의 1992년 현재의 조직도표이다.

도서관 직원수는 232명으로 그 중 전문직 직원은 40여명이다. 중국에서 제일 먼저 듀이십진분류법과 미국국회도서관주제명표목표를 도입했을 만큼 중국 도서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전문직 직원들의 활약 외에도 이 도서관은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 이를테면 劉錦訓, 任鍾澎, 陳希彭, 李大釗 교수등이 도서관장을 지냈고, 유명인사들 이를테면 張申府, 毛澤東 등이 도서관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특히 李大釗과 毛澤東은 주지하다시피 중국공산당 창건에도 큰 업적을 남겼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르크스 연구회’ ‘북경대학사회주의 연구회’ ‘북경공산당소조’ 등은 모두 북경대학도서관장실에서 모임을 가진 바 있다.

藏書

장서는 康有爲의 強學會 집서, 清 정부가 수집한 各省의 管書局 집서, 方大登이 기증한 碧琳琅館 집서 등으로 시작해서 1993년 현재 430만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270만책은 中文서적으로서 여기에는 150만책의 古籍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적 중 16만책은 귀중본이다. 200점 이상의 敦煌자료를 비롯 北宋 刻本의 大西記, 南宋 刻本의 史記集解, 漢書, 後漢書, 明弘治 刻本의 西廂記 등은 귀중본중에서도 珍品이다.

외국자료 역시 100만책이 넘는데 그 중에는 1533년 희랍에서 발행한 「Principle of Geometry」 등 2,000점이 넘는 귀중본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연간 단행본 수서량은



中文도서가 8만책, 外文도서가 1만종 2만책에 이르고 있고, 연속간행물은 신문을 포함해서 中文이 2,800종 外文이 3,600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외국과의 자료교환도 활발하여 80여개국 500개 기관으로부터 매년 5,000점 이상의 단행본과 연속간행물을 교환으로 입수하고 있다.

施設

현재 사용중인 도서관 건물은 일찌기 1956년 北京大學을 둘러본 周恩來의 건축제의와 1972년 万里의 건축계획 검토를 거쳐 1975년에 낙성하였다. 새 건물은 어려운 '文革' 기간중에 건축된 유일한 도서관 건물일 뿐 아니라 당시로서는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도서관이었다.

대학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서관 건물은 총면적이 $24,500\text{m}^2$ 이고 서고는 $11,000\text{m}^2$, 열람실은 $5,800\text{m}^2$ 이다. 서고의 외형은 'L' 主書庫는 10층, 남북으로 뻬은 副書庫는 각기 8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2,000석의 열람석을 가진 열람실은 4층에 'U' 되어 있어서 건물 전체로는 '出' 자 모양을 하고 있다.

3 上海의 圖書館

상해에서는 中國科學院圖書館 산하 地區性文獻情報機構인 동시에 전문도서관인 中國科學院上海文獻情報中心, 中國科學院上海有機化學研究所圖書館, 공공도서관인 上海圖書館, 대학도서관인 上海交通大學圖書館, 復旦大學圖書館, 華東師範大學圖書館, 문헌정보학교육기관인 華東師範大學情報學系를 방문하였는데 여기서는 그 중 규모가 제일 큰 上海圖書館⁴⁰⁾ 을 살펴보기로 한다.

略史

上海圖書館은 중국 제1의 공공도서관으로 1952년에 건립, 개관하였다. 개관당시에

40) 上海圖書館에 대해서는 주로 다음 자료를 포괄적으로 이용하였다. 上海圖書館建館四十周年, 1952-1992 (上 海 : 同館, 1992).

는 上海市文物管理委員會가 이를 관리하였으나 1953년부터는 上海市文化局이 관장하기 시작하였다. 1956년에는 예수회신학교 계통의 徐家匯藏書樓를 접수하였고, 다시 1958년에는 上海市科學技術圖書館, 上海市報刊圖書館, 上海市歷史文獻圖書館을 합병하여 국가도서관인 北京圖書館 다음 가는 도서관으로 발전할 기틀을 잡았다.

1957년 9월 國務院에서 ‘全國圖書協調方案’을 제정, 실시함에 따라 上海圖書館은 全國 第二中心圖書館의 핵심관으로 지정되어 聯合目錄(綜合目錄)의 발간 책임을 맡는 등 특히 상해지역 공공도서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文革’이 있기 전 上海圖書館은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라는 국가시책에 따라 과학연구와 생산건설사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였으나 ‘文革’ 기간에는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심한 정체현상을 면치 못하였다.

1976년 ‘4인방’ 분쇄후 개혁, 개방 추세에 고무받아 한편으로는 옛 사업을 회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 사업을 추진하여 이를테면 1982년에는 4,000m²의 제 2 도서관 건물을 신축하였고, 1988년에는 10,000m²의 서고를 건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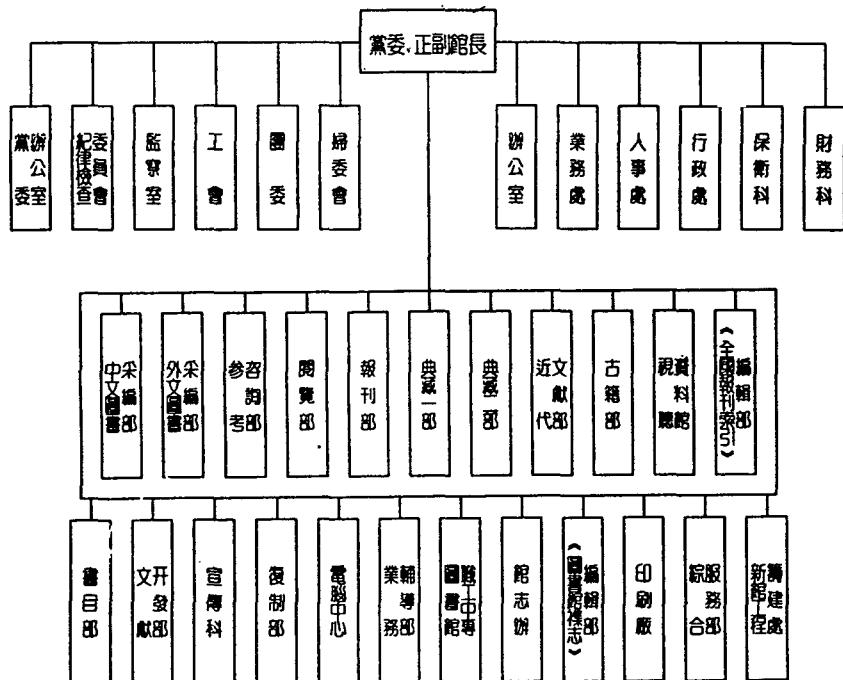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확장에도 불구하고 점증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상해시당국은 이미 10년전 1983년에 上海圖書館을 확장,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즉 1983년에 上海市文化局은 ‘上海圖書館擴建工程辦公室’을 설치하였고, 1986년에는 이를 ‘上海圖書館工程籌建處’로 개명함과 동시에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上海圖書館이 직접 신관신축에 대한 책임을 맡았다. 현재 시공중인 신관은 총 건축면적이 8,000m²로서, 5층으로된 바탕 건물의 양쪽에 탑형 건물을 두도록 설계했는데 하나는 105m 높이에 24층이고 다른 하나는 55.6m 높이에 11층이다. 신관은 장서 1,320만책을 소장할 서고와 각종 열람실 43개, 열람좌석 3,036개를 수용할 계획으로 있다.

機構와 職員

上海圖書館의 조직을 살펴보면 북경대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산국가의 전형적인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공산당위원회간부가 도서관장 및 부관장과 나란히 최고경영진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밖에도 도서관업무에

감독기능을 가진 監察室, 도서관 안전과 보안문제를 다루는 保衛科, 소장장서에 대한 문헌연구를 관장하는 文獻開發部 등은 서방국가에서는 흔히 찾아보기 힘든 부서조직이라 할 수 있다. <표 4>는 1992년 현재 이 도서관의 조직도표이다.

<표 4> 上海圖書館 機構設置 一覽表



藏書

도서관의 직원은 1952년 개관 당시 160명이나 되었지만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1958년 4館 합병시 340명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교육받은 사람은 역시 얼마되지 않았다. 그 후 대학통신교육,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職工中專 등의 과정을 통한 전문적 훈련을 강조, 강화한 결과 1991년말 통계에 의하면 전체

직원 가운데 대학 혹은 대학 전수과정을 마친 자가 41.4%를 차지하게 되었다.

上海圖書館의 현재 총직원수는 770여명으로 이 가운데 사서직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研究館員 16명, 副研究館員 41명, 館員 185명, 助理館員 115명, 管理員 55명이고, 기타직은 360여명이다. 직원 중 공산당원은 121명, 공산청년당원은 137명으로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장서는 설립 당시 65만책으로 시작했으나 40여년이 지난 1992년 현재 1,000만책에 이르고 있다. 비교적 짧은 기간안에 이처럼 괄목할만한 성장을 한 것은 물론 그동안에 여러 도서관을 합병하여 장서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도 있지만 상해시당국이 이 도서관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결과이기도 하다.

장서 가운데 두드러진 集書로는 古籍線裝 150만책과 그 귀중본 15만책, 地方誌 5,300종, 明清時代 名人의 手札과 金石 拓片, 清末에서 1949년 新中國 건국이전까지 중국에서 출판된 도서 10만종 40여만책, 건국이전까지 출판된 中國語 및 外國語 신문 잡지 2만여종, 혁명초기의 각종 자료, 16·17세기 전후 외국에서 출판된 중국과 동남아 각국의 정치 경제 역사 등을 다룬 소위 '東方學' 문헌등이 있다. 연속간행물은 1991년 현재 中國語가 7,600종 外國語가 6,500종이고, 신문은 中國語 350여종 外國語 100여종을 구독하고 있다. 한편, 개혁과 개방, 4化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 이를테면 홍콩 대만도서, 화학 화공도서들도 갖추고 있다.

出版

上海圖書館이 펴낸 書目 가운데 「中國叢書綜錄」(1959), 「中國近代期刊編目匯錄」(1959), 北京圖書館과 南京圖書館을 비롯한 여러 도서관이 협력하여 펴낸 「中國古籍善本書目」(1986)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자료가 풍부하며 체제가 정밀하여 출판 후 국내외 학계에서 크게 호평을 받은 서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書目 외에도 신문 및 정기간행물기사색인인 「全國報刊索引」(원래의 표제는 「全國主要期刊資料索引」) 역시 上海圖書館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간행물 가운데 하나이다. 이 색인은 1955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이래 '文革' 기간의 한 차례 정간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꾸준히 간행되고 있다.

國內外 協力 및 交流活動

上海圖書館은 협동수서, 관제호차, 공동이용, 연합목록(종합목록), 정기 교류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상해지구의 다른 주요 관종, 즉 중국과학원계통 도서관, 대학계통 도서관간에 협력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테면, 3대 관종의 270개 도서관이 참여하여 작성한 「上海市外文新書聯合目錄」은 그 좋은 예이다. 1984년부터는 외국정기간행물에 대한 표준 목록카드를 발행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1980년부터 시작한 국제자료교환업무는 1990년 현재 미국의 뉴욕공공도서관, 호주국립도서관, 블란서국립도서관을 비롯한 12개국의 42개 기관과 실시중에 있다. 1981년에는 IFLA에 가입하였고, 1984년에는 UN의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았다.

4 中國의 文獻情報學教育

4. 1 概況

略史

北京大學의 肖東發⁴¹⁾ 교수에 의하면 중국에 있어서의 문헌정보학교육은 1913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1920년 3월에 설립된 武昌文華大學 圖書科(1953년에 武漢大學에 편입)를 그 효시로 삼는다. 이후 1927년 南京大學, 1947년 北京大學, 1960년 東北師範大學에도 설치되었는데 이중 무한대학과 북경대학이 길게는 근 60년 짧게는 30년동안 중국도서관 인재양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중국의 문헌정보학교육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1978년부터이다.⁴²⁾ 즉 이 무렵부터 한편으로는 문화혁명으로 황폐화되다시피한 도서관을 재건, 복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4대 현대화 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신설되거나 기존 과정이 증설되기 시

41) 肖東發, “中國圖書館學情報學教育40年, 1949-1989,” 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世界文獻出版社, 1991), p. 37.

42) 李常慶, “中國의 圖書館情報學 教育現況과 問題點,” 金京一譯, 도서관문화, 제30권 제1호(1989. 1. 2), p. 18.

작하였다.

1989년 현재 중국에서 문헌정보학 전공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모두 50개 대학인데, 이 중 창립연도가 밝혀져 있지 않은 10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40개 대학중 36개 대학이 모두 10년도 채 못되는 1978년부터 1986년 사이에 과정을 신설하였다. 교육을 주관하는 주무부서 역시 종래 중앙의 國家教育委員會 일변도에서 지방의 省教育廳, 市教育局은 물론이고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부 단위부서들인 機械部, 農牧漁業部등에까지 다양해졌다.(부록 2참조) 이러한 사실들은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얼마나 커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制度

현재 중국에서 정규교육을 통한 문헌정보학교육은 대학원, 대학, 중등전문교육의 세가지 단계로 크게 나뉘어져 있고, 각 단계는 2-3개의 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를 표로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무한대학이 1978년, 북경대학이 1979년에 설치했으나 박사과정은 북경대학이 1991년에야 이를 설치했을 만큼 그 역사가 일천하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석사학위를 대학원에서만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석사학위 수여권을 부여받은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에서도 수여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문헌정보학분야에서 그러한 학위수여권을 부여받은 기관으로는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 中國科學院圖書情報委員會, 國防科工委科技情報所 등이 있다.⁴³⁾

연구생반은 주로 현직자 중 학부 여러 주제분야를 전공한 자를 대상으로 2년동안 문헌정보학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과는 달리 논문제도도 없고 학위도 수여하지 않으나 연구생과정을 수료한 대우를 받는다.

대학의 학부과정중 雙學士과정은 우리나라의 복수전공과 유사한 제도로 문헌정보학과정 이수중에 타전공분야의 규정학점을 취득했을 경우 졸업시 2개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대학의 본과와 전수과는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 과학원계통도서관, 대학도서관, 국가기관도서관 등에 근무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과정

43) 肖東發, 前揭論文, p. 46.

으로 특히 전수과는 그동안 중국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중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형태였다. 한편, 中等專業과정은 도서관의 전체 직원 가운데 40-60%를 차지하는 초급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⁴⁴⁾ 그 대부분이 도서관에 설치된 교육과정이다.

〈표 5〉 中國의 文獻情報學 正規 教育

	段 階	水 準	學 制	教育目標
1 高等專門教育 (大學院教育)	博士研究生			研究型人材
	碩士研究生	7年		師資、研究人材
	研究生班	6年		開發型人材
2 普通高等教育 (大學教育)	雙學士	4-5年		專門技術人材
	大學本科	4年		管理型人材
	大學專修科	3年		綜合型人材
3 中等專業教育	中級技術	2年		工藝人員
	職業高中 (職業高校)		2年	技術人員

出典 : 肖東發. “中國圖書館學情報學教育 40年, 1949-1989.” 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 47.

文獻信息學

중국의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최근 동향으로 가장 두드러진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학문 명칭과 학과 명칭의 개정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오래동안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圖書館學이란 명칭을 학문 명칭과 학과 명칭으로 사용해 왔었다. 그러나가 미국에서 정보학이 도서관학의 일부로 학문의 내용에서는 물론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의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학문 명칭과 학과 명칭, 나아가서는 도서관 명칭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때로는 도서관학 정보학, 도서관학정보학, 도서정보학으로 학문이나 학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문헌정보중심이란 새로운 용어

44) 肖東發, 前掲論文, p.47.

로 도서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다시 학문의 명칭을 ‘文獻信息學’으로, 학과 명칭을 ‘文獻信息管理系’로 개정하고, 도서관 혹은 정보센터의 명칭중 ‘情報’를 ‘信息’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실체적 배경으로 첫째, 문헌신식학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시작한 사실과 둘째, 국가 주요기관에서 관련기구의 명칭을 변경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즉, 1980년대 중반 무한대학 黃宗忠⁴⁵⁾ 교수가 ‘圖書情報一體化’를 주장하고 여러 학자들이⁴⁶⁾ 문헌신식 개념과 이론에 대한 연구결과를 내어놓게 됨에 따라 圖書館學, 情報學, 檔案學과 出版發行管理學을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학문으로 文獻信息學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1992년 9월 國家科委 제8차 全國科技情報會議에서 國家科委科技情報司의 명칭을 科技信息司로, 中國科學技術情報研究所를 中國科學技術信息研究所로改名⁴⁷⁾ 결정함에 따라 ‘信息’이란 용어는 ‘情報’란 용어 대신에 館名의 일부로도 대두된 것이다.

4. 2 北京大學信息管理系

略史

北京大學信息管理系⁴⁸⁾는 중국에서 가장 역사 깊고 권위있는 문헌정보학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로 1947년 北京大學 文學院 附設 圖書館專修科로 시작하였다. 1949년 文學院으로부터 독립하고 高中졸업생을 받아들였으며, 1953년에는 專修科의 학제를 2년에서 3년으로 개편하였고, 1958년에는 다4년과정의 圖書館學系로 개편하였다.

45) 黃宗忠, “試論圖書情報檔案一體的發展趨勢,” 武漢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86年 第6期. 이후 黃教授는 1990년에 “試論文獻信息學”이란 논문을 圖書情報知識, 1990年 第4期, pp. 2-8에 발표하였고, 1992년에는 그의 이론을 집대성하여 文獻信息學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2)이란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46) 沈能富, “應當討論文獻信息理論,” 圖書館工作(安徽), 1984年 第4期. 万良春, “確立‘文獻信息學’概念 建立文獻信息學,” 圖書情報知識, 1986年 第1期. 陣源蒸, “圖書館學和文獻信息學,” 圖書館研究與工作, 1986年 第4期. 唐高潮, “略論文獻信息學,” 圖書情報知識, 1987年 第1期. 張欣毅, “關於文獻信息學的思考,” 圖書館理論與實踐, 1987年 第2期. 陳壽祺, “文獻信息理論研究,” 圖書情報知識, 1990年 第3期.

47) 肖東發, “拓展教學研究空間 培養社會急需要人材 過接時代挑戰 譜寫教育新篇 -北京大學圖書館學情報學系成立45周年改名為信息管理系,” 圖書館學研究, 總第78期(1993.1), p. 6.

48) 北京大學信息管理系에 대해서는 同系에서 1993년에 발간한 소개 자료와 肖東發 교수의 上揭論文을 포괄적으로 이용하였다.

1979년에 3년제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으며, 1982년에는 학과명칭을 圖書館學情報學系로 개명하였고, 1985년에는 교육과정을 도서관학전공과 정보학전공으로 분할하였다. 1991년에 박사과정을 개설하였고, 1992년에는 현재의 학과명칭인 信息管理系로 개명하였다.

教育課程

信息管理系의 교육과정은 크게 學部課程, 대학원 碩士課程, 대학원 博士課程, 성인교육 通信課程으로 나뉜다. 4년제 학부과정은 다시 도서관학전공과 과학기술정보전공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가 170학점, 후자는 168학점으로 규정되어 있다. 3년제 석사과정(단,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수업연한이 4년임) 역시 도서관학전공과 정보학전공으로 분리되는데 수료에 필요한 학점수는 두 전공 모두 38-40학점으로 되어 있다. 박사과정은 설치된 지 얼마되지 않아 이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教職員

信息管理系의 인원은 教員과 職員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원의 경우 행정책임자로 系主任(학과장) 1명 副系主任(부학과장) 2명이 있으며, 교원신분을 가진 당위원회 부서기가 2명 있다. 系(학과)내에는 圖書館學教研室, 分類編目教研室, 目錄學教研室, 情報學教研室, 情報技術教研室의 5개 教研室이 설치되어 있어서 교수들은 각 教室에 8-10명씩 소속해 있다.

교수진은 1993년 현재 교수 11명, 부교수 9명, 강사 17명, 조교 4명 합계 4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원은 도서관자료실에 관원 6명, 학과사무실에 당위원회서기 1명을 포함한 6명, 통신교육사무실에 2명 등 도합 14명이 재직하고 있다.

學生

입학정원은 학부생 70명, 석사생 20명, 박사생 2명이다. 1993년 현재 재적학생수는

학부생 226명, 석사생 56명, 박사생 4명이고 성인교육통신생은 專科 3년 本科 5년을 합쳐 1,100명이 등록하고 있다. 각 과정을 통털어 현재까지 약 6,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教科課程

도서관학전공 학부과정을 한 예로 살펴보면 졸업에 필요한 170학점중 필수과목이 122학점, 제한성 선택과목이 37학점 비제한성 선택과목이 11학점으로 총이수학점수는 물론 필수과목의 학점수도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과과목 역시 전교공통필수과목에 중국혁명사, 중국사회주의건설, 군사훈련, 생 산노동과 전공필수과목에 마르크스레닌문화논저선독같은 '국책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회주의국가의 사서로서 갖추어야 할 학적 자질이 어떤 것인가를 엿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교과과정은 附錄 3에 나와 있다.

5 開放과 交流 – 韓·中 相互協力

우리나라는 1973년 6.23선언으로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정책변화를 가져왔고, 중국은 1978년 제 11기 제 3차 전국인민대표회의 이후 개혁 실용주의 노선과 대외 개 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2년에는 중국의 비우호국가군에서 한국을 제외하기에 이르렀다.

1983년에는 그해 5월에 일어났던 중국민항기 불시착사건을 계기로 직접적인 대화의 길이 열림과 동시에 친인척간의 상호방문과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우리나라 사람의 입국이 허용되었다. 1987년 이후에는 경제인, 정치인, 교포의 내왕이 빈번해져서 1988년의 경우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의 수는 이미 1,500여명에 이르렀다. 1991년에는 영사기능을 가진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였고, 1992년 8월 24일에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후 도서관과 도서관계 인사들이 서방국가와의

교류를 활발히 갖기 시작한 것은 1972년 美·中 상해공동성명 이후부터이다. 즉 1972년 바로 그 해에 미국도서관계 방문단이, 1976년에는 영국도서관계 방문단이, 1978년에는 호주도서관협회 방문단이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 역시 1979년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호 중도서관협의회 1980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도서관협회 총회에 상당수 대표가 참석하였다. 1980년에는 北京圖書館 부관장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이 日本國立國會圖書館을 방문하였고, 1981년에는 이의 답방으로 日本國立國會圖書館 부관장을 비롯한 5명의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⁴⁹⁾ 이후 독일, 이태리, 스페인, 카나다등 여러나라와의 인적 교류가 줄을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나라보다 상당히 늦게 중국과의 도서관관계 교류를 개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1988년 10. 24 - 26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 10차 FID / CAO회의에 성대의 최성진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의 김광영씨를 비롯한 4명이 참석⁵⁰⁾ 한 것을 필두로 1991년 3. 5 - 23까지는 中國科學技術情報研究所가 주최한 과학기술정보관리에 관한 국제워크숍에 產業技術情報院의 강한철, 김석진씨가 참석⁵¹⁾ 하는 등 내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교류에 앞서 문헌상으로 중국의 도서관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즉, 1975년에 필자는 미국 시몬즈대학 문헌정보학대학원 광(Josephine R. Fang)교수의 중국 도서관 방문기를 “中共圖書館 訪問記”란 표제로 도협월보 1975년 10월호에 번역, 소개하였다.⁵²⁾ 이 기사는 新中國 성립 이후 최초로 우리말로 소개된 중국 도서관에 대한 자료로서 당시 관계 기관의 승인을 얻어 발표된 일화를 지니고 있다. 그로부터 10년 후인 1985년에는 국회도서관의 이진상씨가 필자의 지도아래 「中共의 圖書館에 관한 研究」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은 당시의 열악한 연구 조건에도 불구하고 중국 도서관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연구 논문으로서 지금도 이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1991년 5월에는 韓國科學財團과 중국의 國家科學技術委員會 및 中國科學院간 협

49) 李鎭相, 前揭論文, pp. 77-78.

50) 金光水, “中國의 圖書館界를 돌아보고,” 國會圖書館報, 第26卷 第1號(1989. 12), p. 71.

51) 姜漢哲, “中國科學技術情報院,” 情報管理研究, 第22卷 第1號(1991.6), p. 91.

52) 광(Josephine R.), “中共圖書館 訪問記” 李炳穆 譯, 도협월보, 제6권 제8호 (1975.10), pp.13-16.

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1991년 10월에는 산업기술정보원과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간에 상호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두기관의 책임자가 교환 방문한 바 있다. 1992년 9월에는 '한·중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1992년 11월에는 '한국과학기술처와 중국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1992년 11월 28일에는 '한·중 과학기술협력센터'가 설치되었다.⁵³⁾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인력, 정보교류와 협력촉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양국간의 과학기술 분야 도서관 및 인적교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서 금년만 해도 國立中央圖書館에서는 조원호, 박연근씨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상호교류방문에 대한 사전협의 등 중국국가도서관과의 교류확대 논의를 위해 7. 18 - 25까지 北京圖書館을 다녀왔고, 國會圖書館에서는 김광진, 박순자, 임상욱씨가 北京圖書館 및 北京大學圖書館의 한국관계자료 수집방법 및 소장상황파악과 중국의 한국관계 공식 비공식 문서등 관계자료 수집방법 및 소장상황파악 목적으로 7. 18 - 30까지 역시 北京圖書館을 방문하였다. 그런가 하면 연세대 정형우교수는 대학교수해외연수단의 일원으로 7. 13 - 21까지 중국 각지를 여행하였고, 충남대의 윤병태교수는 각국의 출판전망과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8. 25 - 29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6회 국제출판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이념과 체제가 달라 국교수립무렵 이전까지는 상호교류가 거의 없이 지내왔고, 도서관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양국이 이제 개방과 교류의 시대를 맞아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방문의 경우, 아직은 '특정국가 여행'이란 꼬리표가 붙어 있어서 다소 번거로운 느낌이 없지 않으나 앞으로는 곧 이러한 제한마저도 철폐되어서 교류가 더욱 더 확대,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53) 韓·中 科學技術協力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룬 자료로는 다음 것이 유용하다. 韓國科學技術研究院 韓·中科學技術協力센터, 中國科學技術關聯資料 (서울 : 同院, 同센터, 1993).

참고문헌

- 姜漢哲. “中國科學技術情報院.” 情報管理研究, 제22권 제1호(1991.6), pp. 91 - 104.
- 高名凱, 劉正垓. 現代漢語外來詞研究. 北京 : 文字改革出版社, 1958.
- 金光永. “中國의 圖書館界를 돌아보고.” 國會圖書館報, 第26券 第1號(1989.12), pp. 69-76.
- 南京圖書館 編. 圖書館學情報學論文索引, 1981-1989.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3.
- 單行. “인민중국의 대학도서관 발전사 개설.” 김경일 역. 도서관문화, 제33권 제4호 (1992. 7·8), pp. 18-25.
- 孟廣均. “縱改名說開去.” 圖書情報工作, 1993年 第2期.
- 武德運 主編. 圖書館學情報學概要.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3.
- 武漢大學圖書情報學院 編. 圖書館學 情報學 程案學 出版發行學 論文索引, 1949 - 1985.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1.
- 白國應.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的方向, 任務和體制模式.”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 : 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pp. 46-44
- 北京大學校長辦公室 編. 北京大學.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3.
- 北京大學圖書館. 1902-1992. 北京 : 同館, 1992.
- “普通高等學校圖書館規程.” 大學圖書館通訊, 1987年 第5期, pp. 19-22, 27.
- 上海圖書館建館四十周年, 1952-1992. 上海 : 同館, 1992.
- 小黒浩司. “日中圖書館界交流의 歷史.” 圖書館雜誌, vol. 56 no.8(1992.8), pp. 510 -512.
- . “和製漢語 ‘圖書館’ 的 中國에의 移入.” 圖書館學會年報, vol. 32 no. 2 (1986. 3), pp. 33-37.
- 辛希孟.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的現狀和發展趨勢.”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pp. 84-105.
- 辛希孟, 曲紅. “中國科學院文獻情報系通的國際學術交流與合作.” 所收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pp. 328-241.
- 吳晞 編著. 北京大學圖書館九十年記略. 北京 : 北京大學出版社, 1992. 汪家熔. “張元

- 濟和圖書館事業。”圖書館學通訊, 1985年 第2期.
- 王立達. “現代漢語中從日語借來的詞彙。”中國語文, 1958年 第2期, pp. 90-94.
- 汪冰. “情報學研究須繼續加強。”圖書情報工作, 1993年 第2期, pp. 6-7.
- 李常慶. “中國에 있어서 圖書館情報學教育의 現狀과 問題點。”洪英義 譯. 國會圖書館報, 第28卷 第4號 (1991. 7·8), pp. 59-72.
- . “中國의 圖書館情報學 教育現況과 問題點。”金京一譯. 圖書館文化, 제30권 제1호(1989. 1·2), pp. 16-31.
- 李宗春, 徐澍地, 易縛平. “我國圖書情報事業的組職與管理。”圖書館學通訊, 1990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1-15
- 李鎮相. 中共의 圖書館에 관한 研究. 서울 : 1985. (석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6).
- 張錦郎. “清末的圖書館事業。”國立中央圖書館館刊, 第6卷 第2期, 1973.
-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課題組. 中國科學院文獻情報工作發展戰略研究. 北京:中國科學院出版圖書情報委員會, 中國科學院文獻情報中心, 1991.
- 中國科學院四十年, 1949-1989. 北京 : 同院, 1989.
- 中央國家機關和科學研究系通圖書館學會簡介. 北京 : 同學會, 1988.
- 肖東發. “中國圖書館學情報學教育40年, 1949-1989.”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37-66.
- . “拓展教學研究空間 培養社會急需要人材 過接時代挑戰 譜寫教育新篇 - 北京大學圖書館學情報學系成立45周年改名為信息管理系。”圖書館學研究, 總第78期(1993.1), pp. 3-7, 14.
- 鮑振西, 許婉玉, 李哲民. “新中國圖書館事業40年。”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3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91. pp. 16-36.
- 韓國科學技術研究院 韓·中科學技術協力센터. 中國科學技術關聯資料. 서울 : 同院同센터, 1993.
- 黃宗忠. “武漢大學圖書館學科六十年史。”李炳穆 譯. 도협회보, 제25권 제5호(1984.

- 9·10), pp. 2-17.
- _____. 文獻信息學. 北京 :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92.
- _____. “試論文獻信息學.” 圖書情報知識, 1990年 第4期, pp. 2-8.
- Chen, Ching-Chih, "Education and Training in Information Scienc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Bulletin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 6 no. 4(April 1980), pp. 10-11.
- Directory of Chinese Learned Organizations* : 中國學術機構指南. 北京 : 世界圖書出版公司, 1990.
- Fang, Josephine R. “中共圖書館 訪問記.” 李炳穆 譯. 도협월보, 제6권 제8호(1975. 10), pp. 13-16

〈附錄 1〉中國省級公共圖書館概況(1987)

館名	所在地	建館年度	藏書 (萬冊)	面積(m ²)	經費(萬元)
首都图书馆	北京市	1913	197	9860	183
天津图书馆	天津市	1907	265	9700	
河北省图书馆	石家庄市	1978	60	28605	138
山西省图书馆	太原市	1957	147	25000	99
内蒙古自治区图书馆	呼和浩特市	1950	127	3500	48
辽宁省图书馆	沈阳市	1948	235	18700	180
吉林省图书馆	长春市	1960	218	12200	128
黑龙江省图书馆	哈尔滨市	1958	204	10000	117
上海图书馆	上海市	1952	622	27600	835
南京图书馆	南京市	1933	641	23400	280
浙江图书馆	杭州市	1903	337	10000	153
安徽省图书馆	合肥市	1953	178	13000	70
福建省图书馆	福州市	1910	223	11900	114
江西省图书馆	南昌市	1920	213	11400	110
山东省图书馆	济南市	1908	349	10400	159
河南省图书馆	郑州市	1910	199	9100	85
湖北省图书馆	武汉市	1904	332	10000	100
湖南省图书馆	长沙市	1904	304	22900	
广东省中山图书馆	广州市	1912	301	33000	213
广西壮族自治区图书馆	南宁市	1924	155	17686	
广西桂林图书馆	桂林市	1909	122	4107	
四川省图书馆	成都市	1940	379	26100	143
贵州省图书馆	贵阳市	1937	176	7200	92
云南省图书馆	昆明市	1950	212	10000	88
陕西省图书馆	西安市	1909	221	17300	105
甘肃省图书馆	兰州市	1949	240	30000	126
青海省图书馆	西宁市	1934	164	11000	65
宁夏回族自治区图书馆	银川市	1958	134	8000	70
新疆维吾尔自治区图书馆	乌鲁木齐市	1946	72	2000	42

出典：鮑振西，許婉玉，李哲民，“新中國圖書館事業40年”，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3期 所收：中國圖書館學會 主編，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

論文選（北京：書目文獻出版社，1991）p. 23.

〈附錄 2〉 中國의 文獻情報學專攻 大學一覽

番號	大學 學科	大學上級 主管部門	學校 所在地	創立年月
1	武汉大学图书情报学院	国家教委	武昌珞珈山	1920.3
2	南京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南京汉口路	1927 秋
3	北京大学图书馆学情报学系	国家教委	北京海淀区	1947
4	东北师范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长春市斯大林大街	1960
5	湖南大学图书情报学专业	机械部	长沙市岳麓山	1978.10
6	山西大学图书馆学系	省教育厅	太原市坞城路	1978
7	包头师范专科学校图书馆 专业	自治区教育厅	包头市青山区	1978.10
8	北京联合大学文理学院 图书馆学系(北大分校)	省高教局	北京海淀区土城 北路	1978.11
9	上海大学文学院文献信息 管理系	市高教局	上海凯旋路	1978.11
10	华东师范大学图书馆学情 报学系	国家教委	上海中山北路	1979.5
11	南开大学分校图书情报学系	市高教局	天津南开区八里台	1979.8
12	安徽大学图书馆学系	省教育厅	合肥市合作化路	1979
13	北京师范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北京新街口外北 太平庄	1980.4
14	中山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广州市新港路	1980.9
15	兰州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兰州市天水路	1980
16	福建师范大学图书馆学系	省高教厅	福州市工业路	1981
17	华南师范大学图书馆学系	省高教局	广州市石牌	1983.9
18	西安交大管理工程系图书情 报学专业	国家教委	西安市咸宁路	1983.9
19	西南师范大学图书管理专业	国家教委	重庆市北碚	1983
20	杭州大学图书馆学专修科	省教育委	杭州天目山路	1984.5
21	四川大学图书馆学情报学系	国家教委	成都市望江楼	1984.9
22	北京海淀走读大学图书馆 学专业	省高教局	北京海淀区 万泉河路	1984
23	河北大学图书馆学系	省教育委	保定省合作路	1984
24	南京农业大学图书馆 及情报学专业	农牧渔业部	南京市中山门外	1984
25	南开大学图书馆学系	国家教委	天津南开区八里台	1984

26	湘潭大学图书情报学系	省教委	湘潭市西郊羊牯塘	1984
27	中南矿业学院科技情报学专业	中国有色金属公司	长沙市岳麓山	1984
28	吉林工业大学图书情报进修学院	机械部	长春市斯大林大街	1985.3
29	白求恩医科大学图书情报学系	卫生部	长春市新民大街	1985.4
30	江西大学图书馆学专业	省教育厅	南昌市第四交通路	1985.4
31	郑州大学图书馆学系	省教委	郑州市大学路	1985.4
32	北京外国语学院图书信息研究专业	国家教委	北京海淀区魏公村	1985
33	大连大学科技情报学专业	市政府	大连市西岗区	1985.5
34	大连工学院图书情报学专业	国家教委	大连市荣金村	1985.5
35	辽宁师范大学图书馆学专业	省高教局	大连市沙河口区	1985.5
36	黑龙江大学图书情报学系	省教委	哈尔滨市学府路	1985.6
37	山东大学图书管理系	国家教委	济南市洪楼	1985
38	湖南医学院图书情报学系	卫生部	长沙市	1986
39	中国科技大学图书情报学专业	国家教委	安徽合肥市	1986
40	中国人大档案系社会科学情报学专业	国家教委	北京海淀区海淀路	1986
41	东北水电管理干部学院图书情报学专修科	水利电力部	吉林市	
42	华中师范大学图书情报学系	国家教委	武昌桂子山	
43	吉林大学图书馆学专业	国家教委	长春市解放大路	
44	吉林科技大学图书情报学专业	省教委	长春市卫星路	
45	金城联合大学图书馆学专业	省教育厅	兰州市东方红广场	
46	空军政治学院图书馆档案系	空军	上海五角场	
47	西安基础大学图书馆学系	省高教局	西安市咸宁路	
48	太原重型机械学院图书馆学专业	机械部	太原市麻流路	
49	同济医科大学医学图书情报学专业	卫生部	汉口航空路	
50	云南大学图书馆学系	省教育厅	昆明市翠湖北路	

出典 : 肖東發, "中國圖書館學情報學教育40年," 圖書館學通訊,

1989年 第1期. 所收 : 中國圖書館學會 主編.

圖書情報事業的組織與管理論文選 (北京 : 吉林文獻出版社, 1991.)

pp. 40-42.

〈附錄 3〉北京大學 信息管理系 本科 圖書館學專攻 教科課程

1. 全校公共必修课 48 学分

中国革命史	6 学分	外国语	20 学分
哲学	6 学分	体育	4 学分
中国社会主义建设	4 学分	军训	一年
世界政治经济与国际关系	3 学分	生产劳动	每学期一周
政治经济学(资本主义部分)	3 学分	形势与任务	每周 3 学时
法学概论	2 学分		

2. 专业必修课

专业古代汉语	6 学分	图书馆学概论	3 学分
马列文化论著选读	2 学分	图书馆管理	3 学分
高等数学	8 学分	科技文献检索	3 学分
计算机原理	4 学分	普通目录学	3 学分
PASCAL 语言	4 学分	分类与主题	5 学分
藏书建设与读者工作	4 学分	图书馆自动化系统	4 学分
中国书史	3 学分	社会调查	2 学分
中西文工具书	6 学分	实习	4 学分
中西文图书编目法	4 学分	毕业论文	6 学分

3. 限制性选修课 41 学分

A 组：			
古籍整理概论	3 学分	校勘学	3 学分
中国历史书籍目录学	3 学分	外国书史	2 学分
中国文学书籍目录学	3 学分	西方分类法介绍	2 学分
图书馆古籍编目	3 学分	专门图书馆学	3 学分
外国图书馆事业	2 学分	中国文化史	4 学分
方志学	3 学分	中国图书馆事业史	3 学分
版本学	3 学分	外国图书馆事业史	3 学分

B 组：

专利情报工作	3 学分	信息系统分析与设计	3 学分
--------	------	-----------	------

标准情报工作	3 学分	微机及其利用	4 学分
经济情报工作	3 学分	数据库	3 学分
知识产权	2 学分	办公自动化	2 学分
现代情报技术	3 学分	情报分析与研究	3 学分
文献标引技术	2 学分	中国科技情报事业	2 学分
情报学概论	3 学分	国外科技情报事业	2 学分
计算机情报检索	3 学分		
C 组：			
传播学	2 学分	外国期刊概论	2 学分
图书发行与管理	2 学分	书评写作	2 学分
档案管理	2 学分	文献保护技术	2 学分
出版管理	2 学分	专业外语选读	2 学分
编辑学概论	2 学分		
D 组：			
COBOL 语言	4 学分	西方哲学史	3 学分
概率统计	4 学分	国际关系	3 学分
运筹学	4 学分	社会学概论	3 学分
中国通史	4 学分	社会学方法与调查	3 学分
世界史	4 学分	科技发展史	3 学分
中国文化史	3 学分	管理科学基础	3 学分
西方文学史	3 学分	普通逻辑学基础	3 学分
俄苏文学史	3 学分	三论(系统论、控制论、信息论)	3 学分
当代文学	3 学分	艺术类课程	3 学分
中国哲学史	3 学分		

4. 非限制性选修课 13 学分

学生可在教师指导下选修下列课程和其它系开设的课程

第二外语 8 学分

其它非限制性选修课按当年全校各系开课课表指导学生
选学。

5. 供其他系选修的课程目录

科技文献检索 3 学分 春季或秋季或每学期都开。

出典：北京大学 信息管理系(北京：同系，1993)